

승리냐 기사도냐... '특수작전'의 교묘한 줄타기

대담한 작전

유발 하라리 지음·김승욱 옮김



“특수작전으로 적 지도자를 죽이거나 납치한다면 중요 방어기점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군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묶어주는 인물이 사라짐으로써, 적의 군대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권이나 계승권 분쟁의 경우에는 상대편 군주를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이 곧 전쟁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행위였다.”(본문 중에서)

지구촌의 ‘화약고’는 크게 두 곳이다. 한 곳은 중동이고 또 한 곳은 한반도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이래 중동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근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계기로 이슬람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지역이 되다시피 했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을 높여왔다. 이러한 유동적인 군사적 역학관계에서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사피엔스’의 작가이자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이 문제를 조명했다. 최근에 펴낸 ‘대담한 작전’은 그의 전공인 중세사와 군사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 역작이다.

‘서구 중세의 역사를 바꾼 특수작전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역경을 반전시킨 극적인 역사의 자장면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왜 ‘특수작전’일까. 하라리는 이 책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한복판에서 집필했다”고 한다. 그가 특수작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의 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조직들은 이스라엘 인구 밀집지역과 국가적인 상징을 폭 집어서 공격했고,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사령관, 정치인을 납치하거나 암살했다.”

저자가 처한 엄혹한 현실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그 같은 동기는 한반도의 현실과 맞물려 과연 ‘특수작전’이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한다.

알려진 대로 특수작전이란 ‘소규모 부대가 좁은 지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수행하는 전투작전’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특수작전에는 보편적이지 않고 은밀한 전투방법이 이용”되는 셈이다.

특수작전은 중세의 기사도와 군사적 현실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소재다. 이 시대에는 승리라는 목적과 기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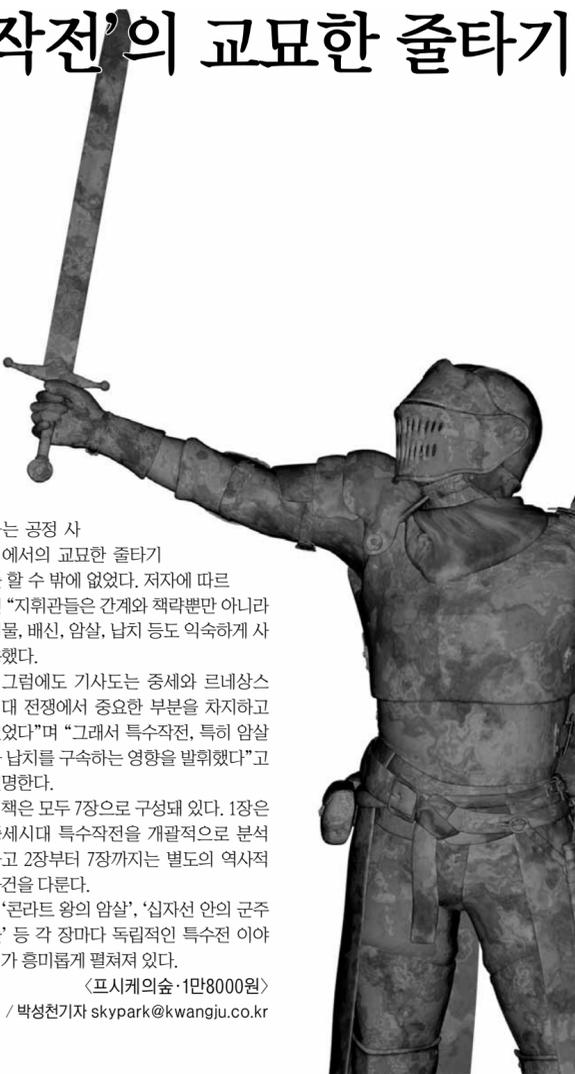
라는 공정 사에서의 교묘한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저자에 따르면 “지휘관들은 간계와 책략뿐만 아니라 뇌물, 배신, 암살, 납치 등도 익숙하게 사용했다.

그럼에도 기사도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특수작전, 특히 암살과 납치를 구축하는 영향을 발휘했다”고 설명한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중세시대 특수작전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2장부터 7장까지는 별도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

‘콘라트 왕의 암살’, ‘십자군 안의 군주들’ 등 각 장마다 독립적인 특수전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져 있다.

〈프시케의숲·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프랑스 부모들의 심계명=이 책은 아이를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지침을 담았다. 마음을 열고 마음과 의식이 당신에게 보내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아이들을 위해서나 부모 스스로를 위해서나 최고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든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곧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존감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최고의 희망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나무생각·1만3800원〉

▲영혼은 왼쪽 이성 오른쪽=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고민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꿈을 향해 나아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듯, 사랑을 위한 마음가짐을 배우려고 하든, 행복을 위한 철학을 갈구하든, 이 책은 당신에게 꼭 알맞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진한 고통 속에서 가슴 아파하거나, 어둠 속에서 앞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피지 못한 사람을 되새기며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한 가득의 현실적인 조언과 극복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중문회사·1만5000원〉

▲질문하는 독서법=이 책은 ‘질문 독서법’ 5단계가 담겨있다. ‘준비(準備) 읽기’, ‘독해(讀解) 읽기’, ‘초서(草書) 읽기’, ‘사색(思索) 읽기’, ‘적용(適用) 읽기’ 5단계의 질문 독서법을 통해서, 독자들은 효과적인 질문으로 저자가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핵심적인 문장을 찾아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질문 독서법’을 통해서 누군가의 독서 성공담, 독서법을 탐닉하는 사람이 아닌 독서로 인생을 변화시킨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평단·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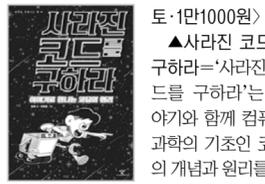
▲청년, ‘리버럴’과 싸우다=세 명의 이십대 청년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썼다. 2000년대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경험한 한국 청년의 눈으로 포스트모던-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의 철학적 기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도발적인 화두를 담은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는 청년들의 선언문이다. 자신을 진보라고 착각하는 권대들이 만들고 이끄는 기존 체제에 투항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진리의 정치를 청년들이 시작하겠다는 출사표를 세상에 던진 것이다. 〈시대의창·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늑대는 딸기를 좋아해=주인공 늑대는 처음에 숲 속 친구들이 무시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울하지만 점차 주변에 친구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서 외톨이가 된다. 늑대는 사납고 힘이 세 숲 속 동물들을 마구 잡아먹어서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동물들이 멀리서부터 출렁랑을 치고 늑대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 결국, 늑대는 숲 속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늑대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동물들이 애쓰는 모습을 재미나게 담아냈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기다려=10여 년간 100권이 넘는 장편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출간한 박연숙 작가의 첫 번째 단편집이다. 이 책에는 ‘먼 길’을 비롯한 작가가 고르고 고른 다섯 편의 동화가 실렸다. 사랑하지만 가끔은 밉고, 때론 부담감에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싶다가도 힘들 땐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가족의 이야기다. 절제된 문장으로 쓰인 담담한 다섯 편의 동화가 봄 햇볕처럼 따스하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진다. 〈북멘



토·1만1000원)

▲사라진 코드를 구하라=‘사라진 코드를 구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컴퓨터 과학의 기초인 코딩의 개념과 원리를 익히는 교양서다. 열두 살 초등학교생 인공 지능 로봇 분야의 기억을 되찾아 주기 위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독자들은 소스 코드, 알고리즘, 함수 등 코딩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고력과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 생각할 거리 또한 던져 준다. 〈창비·1만2000원〉

소박한 서재·이웃에 열린 토담... ‘좋은 집’을 말하다

집이 사람이다

한윤정 지음



‘좋은 집’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이다. 최근 ‘집이 사람이다’를 펴낸 한윤정이 생각하는 좋은 집은 이런 공간이다. 필요한 것은 있고 불필요한 것은 없는 소박한 집,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 쌓인 집, 이전까지 없었던 감각을 일깨우는 예술이 태어나는 집, 그리고 이웃·사회와 더불어 지식과 경험·즐거움을 나누기 위

해 공동체를 향해 열린 집. 기자 출신으로 오랫동안 ‘집이’ 자아의 연장이란 생각에서 집과 닮은 사람, 사람과 닮은 집을 찾아다니는 취재’를 해온 한윤정씨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을 소개한다. 저자는 책에 실린 집들의 공통점으로 “많은 시간 동안 집에 대해 생각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소우주를 창조한 곳”이라고 말한다.

‘소박한 집’ 색션에 등장하는 환경운동가 차준엽의 집은 충남 논산 대둔산 기슭에 자리한 토담집이다. 100년도 더 된 폐가를 연간 25만원에 임대한 그는 오랫동안 꿈꾸었던 집을 만들어보리라 결심한 후 오직 자신의 손으로 집을 완성했다. ‘공동체를 향해 열린 집’에 소개된 독문학자 전영애의 ‘여백서원’은 보관하고 나누고 싶은 책이 있어 직접 지은 한옥으로 책과 사랑하는 시민들,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책은 그밖에 조정란의 봉천동 서재와

시인 조은의 사적동 한옥, 설치미술가 최인준의 광주 자이당(최승호 고택), 사진가 민병현의 군산근대가옥, 심어송라이터 장필순의 제주도 소길리 집,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정원학교, 배우 심철종의 한평극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가지고 철거되는 재개발 지역 빈집들을 4년째 앵글에 담고 있는 박기호 사진작가의 다양한 사진이 함께 실렸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오전의 밝은 햇빛이 필요했기에,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집의 주인과 하루를 산다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 찾은” 두 사람 덕분에 독자들은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인물과사상사·1만7000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3>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3> <p>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p> <p>■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p> <p>■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p> <p>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장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p>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영광주택 매매</h3>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3>법률 경매</h3> <p>(주)대신경매</p> <p>경매교육</p> <p>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공동 사무실 쓰실분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쓰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p> <p>010-6670-9800</p> <p>010-6670-9800 010-7384-7800</p>
--	---	--